소년단

1956.7

새 학년도가 가까와 온다　　김 창규 촬영

앞표지—즐거운 야영의 한때…………리 익화 촬영

야영소들에서 온 소식

해마다 여름은 온다.

여름이 오면 한해 동안의 학습을 훌륭히 끝마치고 소년단원들은
야영을 떠난다.

야영은 여름 방학 동안 가장 즐거운 일의 하나이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의 꽃봉오리들을 훌륭한 야영소들에서 여름 방학을 즐겁게 쉬게 한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속후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를 비롯하여 박연폭포, 9월산, 의주군의 통군정, 독로강변, 룡강군 옥도, 주을 온포, 송도원 등 명승고적지들에서 하는 도 야영들과 군 야영등 200여개소에서 소년단원들이 여름을 즐겁게 보낸다.

이 밖에도 각 학교 대들에서는 고향의 아름다운 품 속에서 야영을 한다.

×　　×

맑은 동해 바다'가를 끼고 소나무 숲 우거져 그림처럼 아름다운 속후에 우리들의 자랑인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가 있다.

해마다 찾아 오는 여름과 더불어 이 야영소에는 공화국 방방 곡곡에서 소년단원들이 모여 온다.

미술 크루쇼크원들은 고기'배 넘나드는 속후 앞바다와 북청 벌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며 야영 생활의 이모 저모도 그린다

이 야영소는 다른 야영소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물으면 궁전처럼 훌륭한 구락부와 침동들이라고 하는 동무도 있지만 동해 바다'가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동무도 있다.

또 하나의 자랑은 북쪽으로부터는 두만강변과 압록강변에서 그리고 백두산 밑에서, 남쪽으로부터는 금강산과 개성 지구에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온 소년단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지방에서 온 소년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만큼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인들 없으랴!

그동안 잡지 《소년단》과 《소년신문》에서 읽은 단 생활 소식들과 경험들을 자세히 묻기도 하며 자기 고향의 자랑을 하기도 한다. 이야기가 고향의 자랑에 이르면 자못 흥성거린다. 한 동무의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 고향은…》 《우리 고향은…》

야외 독서장 옆에는 해당화 붉게 피는 백사장이 있다. 여기서 야영생들은 서로 고향과 학교에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하고 두서너 아이가 일어선다. 자기의 이야기 차례를 남먼저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자리에 우리 조국 남쪽 땅의 벗들이 함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야영은 소년단원들의 기억에 아름다운 인상을 남겨 놓는다.

야영소에서 뜻 깊은 첫 상봉으로부터 대와 분단을 조직하던 일— 모든 동무들의 희망에 따라 음악, 무용, 체육, 동식물, 기술 공작, 미술, 문학, 등 여러 크루쇼크들을 조직하고 거기서 생활하던 일—

그리고 처음 보던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며 또는 해조며 조개들의 표본을 만들어 학교에 가지고 돌아갈 선물을 마련하던 일— 야영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서 지방 특색있는 표본들을 교환하기로 약속한 일—

보름 동안의 야영이지만 몇달 동안 지난듯한 느낌을 받는다.

야영소에서 쓴 그들의 작문들은 야영 생활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리 기 봉)

야영의 하루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체육 대회의 날은 바로 래일이다.

우리 제3 분단에서는 분단별 활동 시간에 체육 대회에 참가할 종목들을 련습하였다. 륙상 경기로 모두 100m 달리기를 해 보았다. 그리고 400m 뛸 사람도 정하였고 높이 뛰기, 넓이 뛰기도 모두 련습해 보았다.

체육 련습할 때에는 아주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와서 일광욕 시간이 어찌되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러나 바람은 곧 멎었다.

내려 쪼이는 따거운 해'별 받으며 은모래터에서 모래찜도 즐거웠다.

오늘은 솔밭 속에서 군중 무용을 배웠다. 무용 선생님이 《돈돌라리》 춤을 먼저 추었다. 이 《돈돌라리》는 이 지방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춤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이 무용을 배우고 우리의 야영 생활을 견학하러 온 신창군의 여

러 선생님들과 같이 추었다. 군중 무용 시간은 아주 재미 있었다.

문학 크루쇼크 시간도 재미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나는 훌륭한 작문을 하나 지어서 야영소에 남기고 가겠다는 것을 생각했다. 저마다 작품을 써서 문학 선생님에게 보이고 작품집을 만들자고 하였다.

이 기쁨이 사라지기 전에 도서실에서 동시집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를 한권 빌려 왔다. 친한 동무인 홍 성희, 리 금자 동무와 같이 솔밭에서 시 랑송 련습을 했다. 나는 동요 《기관사 아저씨》를 외여서 련습했다.

합창, 무용으로 즐거운 문화 오락 시간을 보내고 나니 래일의 체육 대회가 몹시 기다려진다.

조선 소년단 속후 소년단원
중앙 야영소대 3분단 **김 행 자**

배'놀이

야영의 기'발을 올린 뒤였다.

지도원 선생님은 《오늘은 배'놀이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배'놀이를 기다리던 우리들은 지도원 선생의 이 말씀을 듣고 서로 얼굴을 쳐다 보면서 기뻐하였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집합 라팔 소리와 함께 모두 빤쯔 바람으로 백사장으로 뛰여 나왔다.

해'빛은 따겁게 내려 쪼이고 우리들의 배'놀이를 반겨 주는듯 방긋방긋 웃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들은 뽀트에 올랐다. 노래를 부르며 노를 저어 수평선 멀리를 향하여 뽀트를 몰았다.

우리들의 가슴도 넓은 바다처럼 넓어지고 출렁이는 것 같았다.

갈매기들은 우리 머리 우에서 빙빙 날아 돈다. 멀리 떠 있던 고기'배들은 점점 가까와왔다. 갈매기 날고 고기'배 물'결 가르며 달려 오는 바다! 조국의 바다는 참으로 아름답다.

백사장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와왔다. 즐거운 배'놀이가 끝나는 것을 모두 서운해 하였다.

속후 중앙 야영소 대
1분단 **김 영 천**

황북도 야영소—박연 폭포에

평남도 야영소—옥도에서

함남도 신창군 야영소에서

그들은 애국자로 자랐다

김 경 현

이 이야기는 1931년 10월 17일 함남 북청군 속후면에 사는 300여명 소년들이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이야기입니다.

× ×

솔밭 속으로!

1931년 10월 17일—

이날 속후 공립 보통 학교에서는 가을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부모들과 함께 울긋불긋하게 차린 학교 운동장으로 달아 갔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못다니는 소년들은 이날 운동회 구경은 안가고 학교에서 좀 떨어져 있는 깊은 솔밭 속으로 띠염띠염 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솔밭 속에는 속후면 나호리, 오매리, 서호리에서 오는 소년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 듭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이 소년들이 무슨 일로 이 깊은 솔밭 속으로 모여 드는지 그들 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

다. 또 솔발 속으로 들어가는 소년들을 보았다고 하여도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소년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한 사람도 입밖에 내지 않았고 밖에서 들여다 보이지 않으리만큼 소나무가 빼곡 들어찬 깊은 숲 속이니까 더욱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겁 많은 아이들은 몸을 움추리며 무서워 할 만큼 깊은 이 숲 속에서 소년들은 무슨 일을 꾸밀가요?

그들에게는 열흘 남아 밤 새워 차비해 온 장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창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을 때 소년들은 줄지어 삐라를 뿌리면서 시위를 할 것이며 주재소를 습격할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호리에서 온 전 상형 동무는 준비가 다 되였는가를 다시 한번 검열해 봅니다. 시위 대렬을 지켜 줄 별동대도 다 왔고 수천매의 삐라가 소년들의 가슴속에 불씨처럼 안겨 있었습니다. 들고 나갈 기'발들도 둥둥 울릴 북도 물샐틈 없이 갖추어졌습니다.

씩씩하고 용감한 300여명 소년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나갈 시간이 다 되였습니다.

《야학도 못하게 하다니?》

열 일곱개 동리가 있는 속후면에 학교가 하나 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소년들은 학교에 갈 념도 못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어찌하다 학교를 세운다해도 조선 사람을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말, 일본 력사를 가르쳤습니다. 잘 살게 된다고 농민들을 속이여 수리 조합을 만들고는 소작료에 수세까지 받아 일본놈과 지주들의 배를 불리였습니다.

가난한 집 소년들은 학교에 못 간다고 공부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농민 조합 아저씨들의 지도를 받아 야학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년들은 《독서회》라고도 하고 어떤 동리에서는 《삐오네르》라고도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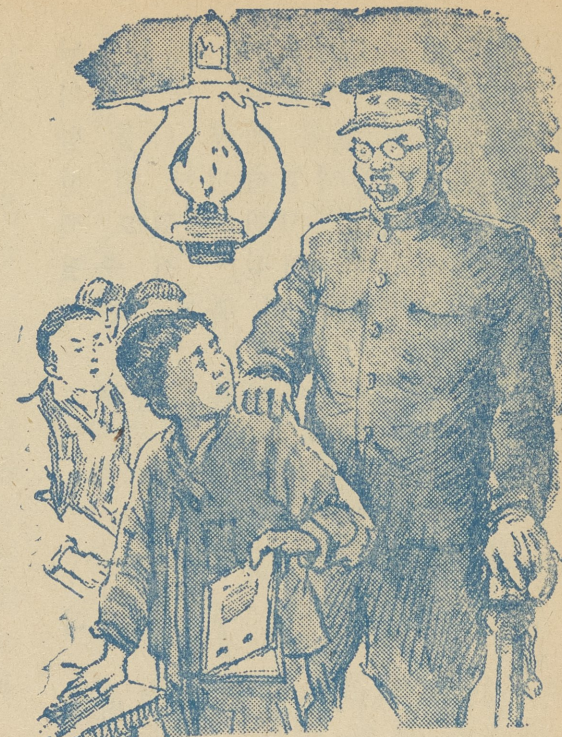
농민 조합은 소작하는 농민들을 묶어 세워 일제와 지주를 반대하여 싸우기 위해 조직한 것이였습니다.

야학에서는 국문도 배우고 노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왜 나쁜가?를 배웠고 우리의 원쑤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배웠습니다.

김 일성 원수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과 농민 조합이 무엇 때문에 조직된 것도 알았고 정평, 단천, 영흥, 홍원 지방 농민들이 련달아 일어나서 일제놈들과 지주를 반대하여 싸운 까닭도 알았습니다. 신나는 이 이야기는 소년들의 가슴을 높뛰게 했습니다.

낮에는 고된 농사'일을 하고 밤에 하는 공부지만 모두 신이 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기쁨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 캄캄한 밤중에 주재소의 일본놈 우두머리 순사가 나호리에서 하는 야학에 나타나서 《누가 야학을 하라고 했는가?》하고 눈알을 부라리며 야단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학을 책임 맡고 있던 전 상형 동무를 주재소로 끌고 갔습니다. 순사놈은 《당장 야학을 그만 두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 가두겠다》고 울러대였습니다.

이 소식은 오매리 서호리 소년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소년들은 《야학도 못하게 하다니?》하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였습니다.

봄내 여름내 피땀 흘려 농사지어서 왜놈들과 지주들에게 소작료니 수세니 하여 몽땅 빼앗기고 가난에 쪼들려 학교에 못 가는 소년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글배우는 것조차 막는 왜놈들을 미워 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독서회에 다니는 소년들은 우리 글을 배우는 야학을 없애라 말아라 하지 말고 왜놈들은 물러가라고 할 것을 의논하였습니다. 농민 조합 아저씨들은 무엇보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 주며 찬성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위와 주재소 습격 준비는 시작되였습니다.

밤마다 집들을 옮겨 가며 쥐도 새도 모르게 삐라를 썼습니다. 먹을 갈아서 붓으로 한장 한장 써야만 했습니다. 삐라는 전 상형, 김 철성, 리 석경, 장성종 동무들이 썼습니다. 글씨들

은 고루지 못했으나 힘찼습니다. 운동장을 뒤덮을 수천매의 삐라를 쓰는 일은 하루 이틀 밤에 될 일이 아니였습니다. 전 상형 동무는 한편 시위 대렬도 짜고 김 철우, 최 현설, 전 주필 동무들은 기'발이며 북도 준비했습니다.

소년들의 이 비밀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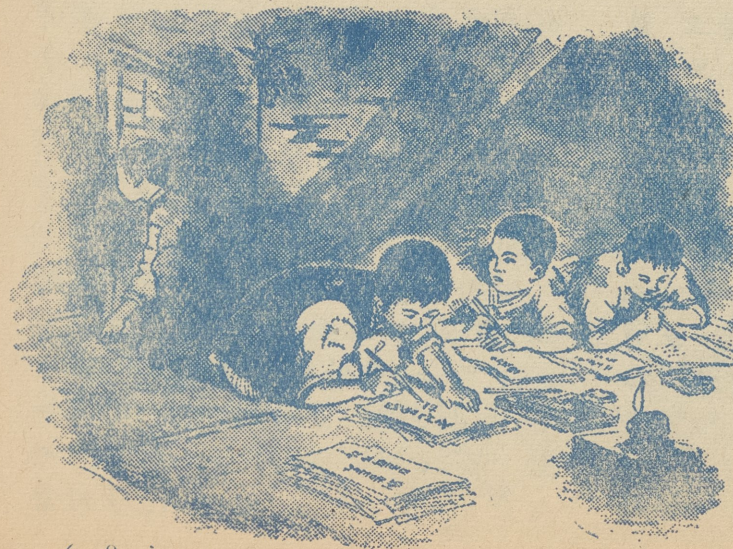
붉은 기'발을 꽂다

한낮이 되였습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둥둥 울리더니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가려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킨다…

우렁찬 노래 소리가 울려 왔습니다.

오른 손에 붉은 기를 든 소년들의 시위 대렬이 운동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군데군데 기운 바지 저고리를 입었으나 가슴을 쭉 펴고 름름히 행진하는 그들의 눈동자 마다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시위 대렬 앞장에 선 전 상형 동무가 야무진 목소리로 《왜놈들아 물러가라》하고 웨치는 구호를 받아 전체 소년들이 우렁차게 웨쳤습니다.

한창 운동회가 벌어지고 있는 운동장 한 복판에 난데 없이 300여명 소년들의 시위 대렬이 나타나 씩씩하게 구호를 웨치며 시위한 것입니다.

제일 질겁한 것은 야학을 순순히 그만 두리라고 믿었던 속후면 주재소 일본놈 순사와 윤돼지라는 지주였습니다.

그들은 일본도와 지팽이를 휘두르며 시위 대렬을 막아 보려했습니다. 시위 대렬을 지켜나가던 별동대 소년들이 방맹이로 그놈들의 뒤통수를 《딱》하고 내려 쳤습니다.

소년들의 시위 대렬은 더욱 기세가 높아갔습니다.

《왜놈들아 물러가라》
《지주를 없애 치우자》
《야학 폐지 반대》《조선 독립 만세》…이런 구호들이 적혀 있는 삐라들이 사방에 뿌려졌습니다.

운동장에 모였던 인민들은 삐라를 주어 읽으며 용감한 소년들의 시위 대렬에 섭쓸려 나갔습니다. 어른들과 소

년들의 마음은 한뜻이였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소년들과 함께 부르는《조선 독립 만세》소리는 더욱 우렁찼습니다. 전체 인민들과 소년들은 자기들의 뭉친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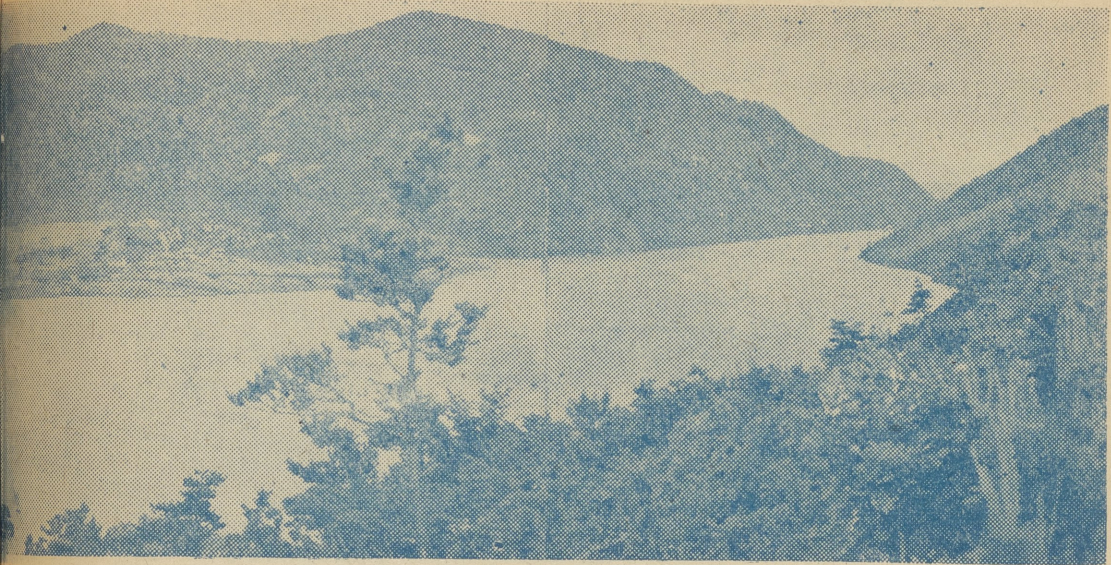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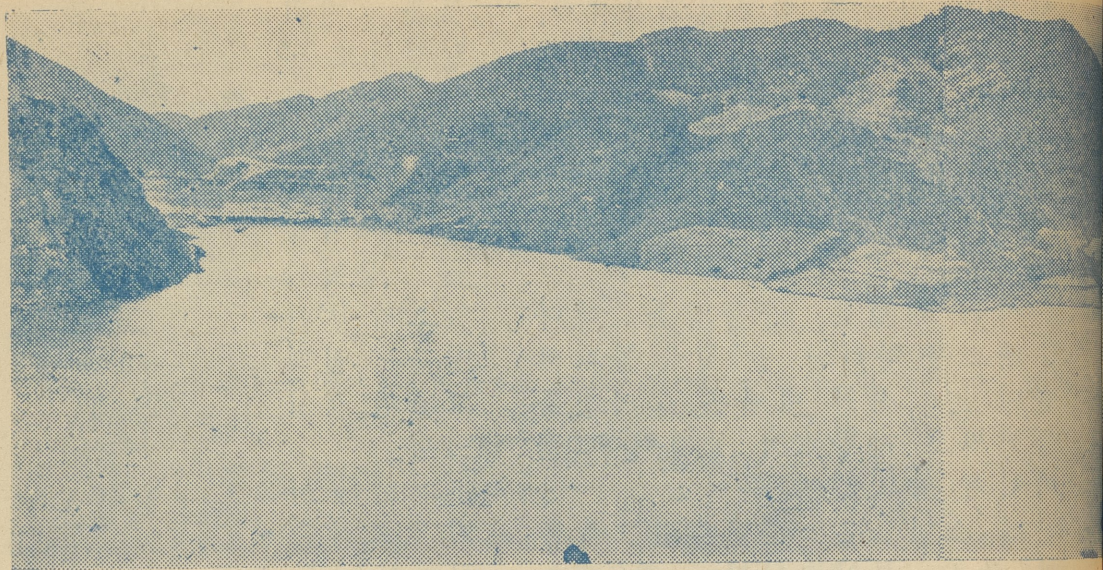
시위 대렬은 운동장을 떠나 주재소를 향하여 발'길을 돌리였습니다. 시위 대렬은 주재소를 둘러싸고 사방에서 돌맹이를 들이치며 습격하여 들어갔습니다. 한편 소년들은 준비했던 붉은 기'발을 꽂았습니다. 기'발은 소년들의 시위의 성공을 반기는듯 춤추며 힘차게 바다 물'결처럼 펄럭이였습니다

× ×

일본 경찰들은 그때 이것을 《북청 삐오네르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놈들은 어린 소년들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일어나는 것을 몹시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년들의 행동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위에 참가한 300여명 소년들 가운데서 100여명을 붙잡아 갔으며 10여명을 징역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들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습니다. 징역을 살고 나온 후에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농민 조합 운동에 몸바쳐 싸웠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투쟁의 불'길속에서 굴할 줄 모르는 애국자로 자라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의 길에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풍 저수지——새로 생긴 우리 바다

2천리 맑은 물'줄기

김　정　태

1. 새로 생긴 우리 바다

양덕 맹산 구비구비
흘러나린 대동강 물,
십리'굴로 이끌어서
새로 생긴 우리 바다.

얼시구나 좋아라 연풍 저수지
푸른 물도 기쁨에 춤을 춘다네.

눈바람이 거세차도
아저씨들 밤낮 이어
산을 뚫고 강을 막아
이룩하신 넓은 바다.

얼시구나 좋아라 연풍 저수지
우리나라 새 나라의 자랑이라네

마른 하늘 바라보며
목이 타던 우리 벌에
한 초 동안 50톤씩
생명수를 주는 바다.

얼시구나 좋아라 연풍 저수지
우리나라 기름지울 생명수라네.

2. 서로 만난 기쁨

새 길 따라 흘러가는
맑고 푸른 대동강 물,
출렁출렁 춤을 추며
잘도 잘도 흘러가요,

높은 산이 마주서면
산을 뚫고 흘러 흘러

넓은 강에 마주치면
강 밑으로 빠져가요.

새 살림을 노래하며
금수리에 이르르니,
새 길따라 흘러온 물
청천강 물 만났어요.

서로 만나 얼사안고
어깨춤을 추는 기쁨
누가누가 주었을가
새 나라가 주었지요.

어깨겯고 흘러흘러
2천리를 벋어나려
금빛나락 거두어라
새 기쁨을 주었지요

3. 2천리 맑은 물'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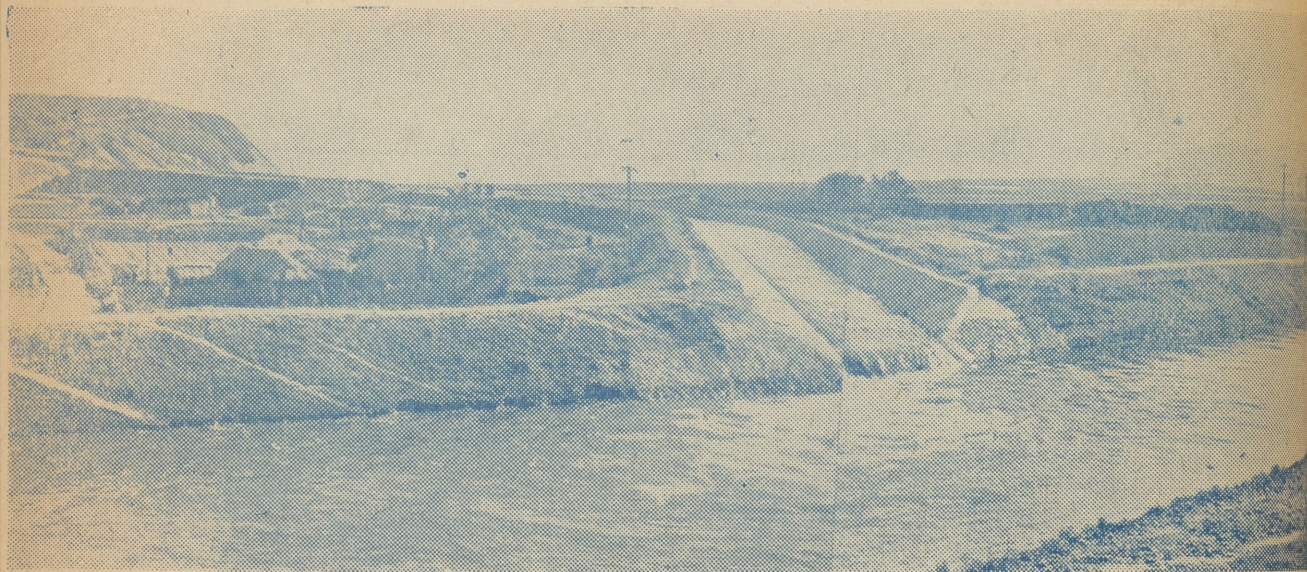
개천 안주 문덕 숙천 평원땅거쳐
어깨춤도 남실남실 구비흐르는,
2천리 물'줄기 맑은 물'줄기
새 행복을 싣고서 흘러 나리네.

두리둥실 흐르네 2천리 젖줄기
사회주의 새 동산이 꽃피여나네

바다로 흐르던 우리네 강물
오늘날은 이 땅의 생명수 되여,
논밭에 물주며 흘러 2천리
우리 노래 흥겨워 춤을 춘다네,

두리둥실 흐르네 2천리 젖줄기
사회주의 새 동산이 꽃피여나네

바다에 잇닿아 아득한 들판
가물타던 논마다 새 물이 넘실,
새로 푼 논에도 차고 넘치여
풍년드는 2천리 물'줄기라네,

두리둥실 흐르네 2천리 젖줄기

대동강물과 청천강물이 서로 만나는 곳!

사회주의 새 동산이 꽃피여나네

가물면 하늘만 우러러보던
이 땅 우에 금 물'결 너울치
 는 날,
그날을 그리며 노래 드높이
새 나라에 우리들 인사 드리네.

두리둥실 흐르네 2천리 젖줄기
사회주의 새 동산이 꽃피여나네

4. 새 물 맛이 좋아라

생명수 넘치는 아득한 논배미
협동조합 손도와 모내기 좋다.
내 고향 넓은 벌 끝에서 끝까지
울려울려 퍼지는 모내기 노래,

에헤요 넘겨라 모'줄 넘겨라
어여차 넘었다 어서 꽂아라

푸르른 배미에 싱싱한 우리 모
새 물맛이 좋아라 바람에 살랑.
호미로 땅 파고 노란 모
 심던 벌
한숨 대신 오늘은 웃음이 핀다.

에헤요 넘겨라 모'줄 넘겨라
어여차 넘었다 어서 꽂아라

춤추며 새 논벌 찾아든 물새도
새 물 맛이 좋아라 둥지를 튼다
2천리 흘러온 생명수 넘치는
넓고 넓은 논배미 모내기 좋다.

에헤요 넘겨라 모'줄 넘겨라
어여차 넘었다 어서 꽂아라

5. 우리의 새 희망 꽃 피우리라

내 고향 푸른 벌에

맑은 물 넘실넘실
6월의 푸른 바다
반기여 춤을 추는
모포기 싱싱 커라
금물'결 너울쳐라

해'님도 방싯방싯
밝은 빛 비쳐 주고
떠가는 흰 구름도
쉬였다 다시 가는
넓은 벌 푸른 벌에
새 행복 무르익네.

모두다 로동당이
베푸신 높은 은덕
모두다 새 나라가
베푸신 깊은 은덕

동무야 노래하자
노래야 퍼져가라,

우리의 남녘 땅에
굶주린 어린 동무
그 손'길 마주 잡고
이 행복 함께 누릴
새 아침 밝아오네
종 소리 울려오네.

2천리 구비구비
젖줄기 끌어들여
기름진 내 고향 벌
아득히 푸른 벌이
우리의 새 희망을
소담히 꽃피우리.

새물 받아 모를 낸다

관찰하며 배운다!

자강도 전천군 제2 중학교
(인민반)대에서

여름 방학이 갓시작된 어느날 학교실습지에서 부지런히 김을 매던 4분단 동무들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들아 이건 이상한 시금치야》. 보습반 형님들의 실습지에서 누가 이렇게 소리치자 동무들은 하나 둘 모여 왔습니다.

파란 잎들이 탐스럽게 자라고 있는 시금치 밭 가운데에 잎이 널찍하게 퍼지고 색이 연한 식물이 몇 포기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 시금치 하구 비슷두 한데…》.

《아니야 잎의 색갈이 좀 다른데두 뭐》.

소년단원들은 한참 동안 서로 옥신각신 했지요.

모두 이상하게 생긴 시금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무들은

《얘 정옥아! 이것 좀 와 봐, 이게 뭐야》 하고 오이 밭에 있는 정옥 동무를 불렀습니다.

자연'과 공부를 잘하는 정옥이는 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달려 와서 한참 살펴 보던 정옥 동무는 《이것두 시금치지 뭐》 하고 동무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이때에 개울에 갔다 온 운룡 동무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건 사탕무야…》 하고 얼마전에 강계에 갔다가 농사 시험장에서 본 일이 있는 사탕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나라 백두 5호 농장에서 많이 재배하는 사탕무 말이지》.

박 인서 동무는 신기한듯이 소리쳤습니다.

《참 이걸루 사탕을 만든다구 했어》 하고 이들은 래년에는 사탕무를 꼭 재배해 보자고 서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래'동안 정옥 동무의 머리는 사탕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지요.

《공부 시간에 배운 사탕무를 몰랐구나》. 정옥 동무는 이렇게 뉘우치고 관찰하며 배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깨닫게 되였습니다.

× ×

정옥이네 집 화분에는 란초꽃이 아름답게 피였습니다.

기쁜 얼굴로 란초꽃을 들여다 보던 정옥 동무는 머리를 기웃둥거리며 까만 눈을 숨벅거리고 서 있을 뿐이지요.

《웬일일가? 란초가 해'빛이 들어 오는 쪽으로만 기울어졌으니…》.

정옥 동무는 이렇게 생각하며 바깥 쪽으로 기울어진 란초를 방 안쪽을 향하게 화분을 돌려 놓았습니다.

이틀 후에도 란초는 여전히 해'빛이 비쳐드는 바깥쪽으로 기울여져 있겠지요.

정옥 동무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누가 화분을 움직여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란초가 기울어진 쪽을 알 수 있게 화분에 표를 해 놓았습니다.

꽃은 언제나 창문쪽으로만 기울어지는 것을 본 정옥 동무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동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무들도 이것을 재미있게 관찰해 보면서 식물이 자라는데는 반드시 해'빛을 받아야 된다고 배운 것을 복습했습니다.

란초는 해'빛을 더 잘 더 많이 받기 위해 기울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이처럼 덩굴(손) 짓는 식물에 대해서도 복습했지요.

덩굴 짓는 식물에는 줄기가 덩굴로 되여 감겨 오르는 식물과 가지나 잎이 덩굴로 된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이 분단 동무들은 덩굴 짓는 식물을 더 찾아 보기 위하여 들에 나갔습니다.

여때까지 아름답다고만 보아오던 넝초꽃을 자세히 살펴 보

던 정옥 동무는 재미있는 것을 알아 내였지요.

그 덩굴이 꼭 왼편으로만 감겨져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덩굴이 나무에 감길 때에는 식물에 따라 메꽃처럼 반드시 오른편으로만 감기는 것과 한삼덩굴처럼 왼편으로만 감기는 것이 있다는 것과 다래나무와 같이 제멋대로 감기는 것도 있다는 것을 관찰에서 새로 알게 되였습니다.

이처럼 복습과 관찰에서 새로 알게 된 것은 꼭꼭 학습장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옥 동무의 학습장에는 이런 것도 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과 함께 협동 조합에 가서 옥수수의 인공 수분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았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옥수수의 수꽃가루를 암꽃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이삭들은 틀림 없이 알이 잘 붙게 되지…정말 그런가 가을에 한번 와 보십시요.〉

냉 초　　　한삼덩굴

우리는 왜 그럴 것인가 하는 것까지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들도 협동 조합 아저씨들과 형님 누나들을 도와 옥수수의 인공 수분을 해드리고 돌아오면서 실습지에 심은 옥수수도 인공 수분을 해 주자고 약속하며 기뻐했다.

앞으로 나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고 공업 원료로 널리 리용되는 옥수수의 재배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겠다》.

이렇듯 배운 것을 관찰해 보며 새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정옥 동무와 이 분단 동무들의 기쁨은 날이 갈수록 커져 갑니다.

(박 정 렬)

자랑스러운 꽃봉오리

—조선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축전을 참관하고—

우 봉 준

낮게 드리웠던 장마'날 구름은 씻은듯이 가시고 하늘은 한 없이 맑고 푸르다.

오늘은 6월 24일 조선 소년단 창립 10주년 기념 전국 소년단원 축전이 있는날, 아침부터 민주 수도 평양의 거리는 이날을 경축하는 사람들로 들끓기 시작하였다.

큰 거리와 김 일성 광장은 꽃봉오리와 학부형들로 꽉 찼다.

눈이 가는곳 마다 오색기가 펄럭이고 오각별 선명한 공화국기가 소년단 기'발과 더불어 숲을 이루고 꽃다발이 물'결쳐 흐르고 있다.

새 나라의 따뜻한 품에 안기여
10년을자라온 조선 소년단
…………

화려하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의 노래 소리가 퍼져 간다.

정각 9시 30분이 되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김 두봉 위원장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과 래빈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광장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 속에 휩싸이고 환호 소리는 멎을 줄을 모른다.

10년 자란 소년단원의 자랑도 드높이 붉은 넥타이를 휘날리며 귀여운 소년단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주석단으로 달려 나간다.

또 한번 대지를 들었다 놓는듯한 환호 소리가 일어났다. 오늘 슬기로운 우리의 120만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을 사랑하고 키워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류창한 라팔 소리가 울리였다. 뒤'이어 각도 대표들의 쩌렁쩌렁한 구령이 들리고 절도 있는 소년단 규률을 자랑하는 듯 대렬 보고가 광장을 울리였다.

축전은 개막되였다.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의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칠세라 주의 깊게 듣고 섰는 꽃봉오리들의 새'별 같은 눈은 행복에 빛나고 있다.

민청 중앙 위원회 박용국 위원장의 말씀도 소년단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행복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7만의 《꽃봉오리》가 일제히 발자욱을 내 딛였다. 꽃봉오리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나라의 풍부한 부원을 아로새긴 공화국 국장을 높이 든 선두 대렬이 나간다. 뒤'이어 공화국 기'발이 따른다. 송이송이 아름다운 꽃송이와 귀여운 소년단원들에게 둘려 싸인 김 일성 원수의 초상화를 든 대렬이 나타난다.

그렇다, 바로 저 기'발 밑에서 저분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행복하게 자라 왔다.

꽃봉오리 대렬이 주석단을 향해 웨치는 만세 소리와 환호 소리는 행진곡과 어울려 하나의 커다란 합창으로 변하였다.

소년단 휘장이 나타난다. 그 대렬은 일제히 꽃다발을 들어 흔든다. 박수가 인어난다. 환호가 일어난다.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고 쓴 구호가 나타난다.
라팔과 소고와 피리대가 소년단 행진곡을 부르며 간다.

붉은 줄 느린 옷차림을 자랑하며 만경대 학원 학생들의 사열 대렬이 발구름도 우렁차게 행진하고 있다. 일찌기 일제를 반대하여 혁명의 홰'불을 높이든 김 일성 원수의 항일 빨찌산 대오 속에서 자라난 아동 혁명단의 전통을 이어 받은 그 모습의 슬기로움이여!

꽃 바다 속을 수천수만의《서 강렴》이 간다. 조국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긴《소년 근위대원》이 간다…

아름다운 조선옷 대렬속에 비둘기가 날아 오른다. 빨간 고무 풍선이 두둥실 떠 오른다.

이나라 소년단원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노래하는듯 비둘기는 훨훨 머리우를 날아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앞날을 축복하는듯 거침없이 떠 올라가는 고무풍선 고무풍선… 소년단대 기'발과 분단 기'발이 간다. 그 뒤를 모형 책이 간다. 모형 자동차가 간다. 우리 소년단원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모형 대렬이 간다… 그 뒤를 화관을 쓴 어린이들의 마스겜 대렬이 간다.

먼 자강도 산'골로부터 군사 분계선을 눈 앞에 두고 있는 신 해방 지구와 그리고 압록강 건너 형제 나라 동북에서 배우고 있는 동무들까지 각지에서 모여온 축전 참가자들은 정답게 어깨를 겯고 나간다.

내 옆에 서 계시든 어머니 한분이 아까부터 옷고름으로 눈을 닦는다. 대렬 속에서 어린 딸 성자를 발견한 어머니는 너무 감격하여 목이 메였다.

《성자 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이 축전을 함께 보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쑤들은 개성에서 쫓기여 갈 때 성자의 아버지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성자의 아버지는 지금 남반부에서 가진 고생을 당하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성자는 공화국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며 공부하고 있다. 성자는 공화국의 주인으로 자라고 있다. 성자는 행복하다.

성자의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그 얼마나 좋았으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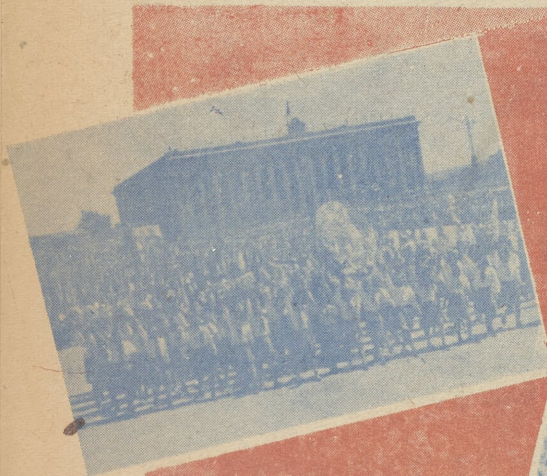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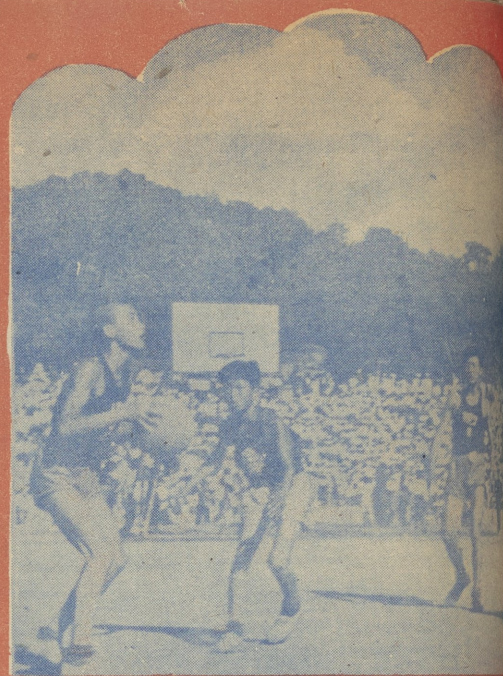
민청의 교대자인 소년단원들은 부쩍부쩍 자란다. 오늘 축전을 맞이하는 전체 소년단원들이 우리 나라의 주인으로 될 것이다. 그 날은 얼마나 훌륭할 것인가.

《리 순신 장군이 나온다!》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리 순신 장군을 비롯하여 강 감찬, 을지문덕 등 애국적 명장들과 위대한 작가 정 다산, 박 지원 선생님으로 가장한 대렬이 나온다.

애국적 선조들을 본받아 훌륭한 인재가 되려는 갸륵한 소년단원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꽃봉오리 행진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였다. 오색 고무풍선이 나오고 꽃다발이 행진한다. 민청 기와 민청 휘장을 앞세운 교대자 대렬이 나오고 형제 나라 삐오네르 휘장이 나타난다.

야영등산 대렬과 어린 체육인 대렬이 나간다. 오색기 대렬이 행진한다… 7만의 꽃봉오리 대렬은 줄기차게 행진한다.

김 일성 광장에서부터 풀려 나간 꽃봉오리 행진은 거리로 거리로 흐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더미만 남았던 이 거리가 오늘은 높직한 새 건물들로 차 있다. 이 거리를 영웅 조선의 소년단원들이 자랑차게 행진하고 있는 것이다.

밝은 창턱들에서 대렬을 향하여 꽃보라를 뿌리며 박수를 보내여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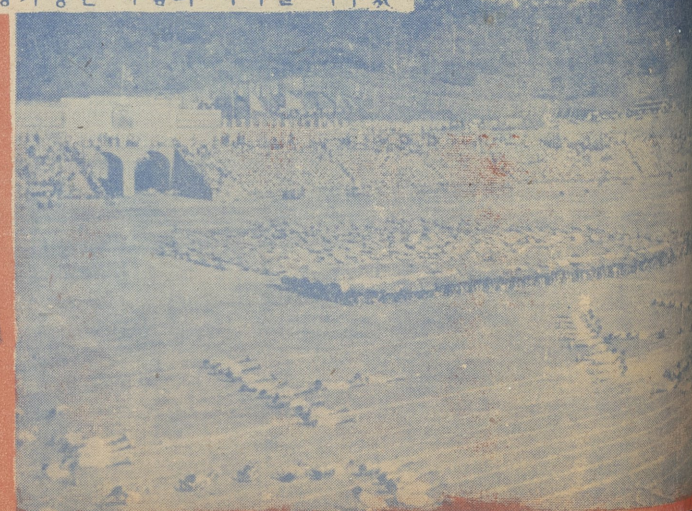
가슴 활짝 열고
축하를 받으라 소년단원들이여
조국의 앞날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 속에
조국의 래일이 숨쉬고 있거니
자랑하자 노래하자,
우리의 행복한 생활을—

×

모란봉 경기장은 사람의 바다를 이루었다. 건강한 체력을 자랑하는 소년단원들의 체육 축전 경기는 지금 한창 무르익어 가는 중이였다.

함북 선수들이 뽈을 몰고 들어 간다. 황북 선수들은 결사적으로 방어에 나선다. 손에 땀을 쥐고 군중은 《꼴, 꼴》 《슡, 슡》 큰 소리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진땀이 나도록 아슬아슬한 순간이 몇번이고 계속되다가 《와》하는 함성이 일어 났다. 함북 선수들의 맹렬한 공격으로 뽈은 황북의 방어진을 돌파하였다.

출발을 알리는 총 소리와 함께 륙상 선수들의 100메트르 경주가 시작되였다. 군중은 한사람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응원을 보낸다. 수건을 흔들고 팔을 내저어 흥분한다.

한쪽에선 롱구가 진행되고 그 옆에선 씨름판이 벌어지고 있다. 주석단 우측에서는 배구 선수들이 뽈을 향해 날째게 뛰여 오르고 있다.

인형극 《슬기있는 두 남매》
(선천 초등 학원)

아동극 《조국의 자연속에서》
(만월 인민 학교)

군무 《야영의 하루》
(청진 1중)

함남도 동무들의 기악 합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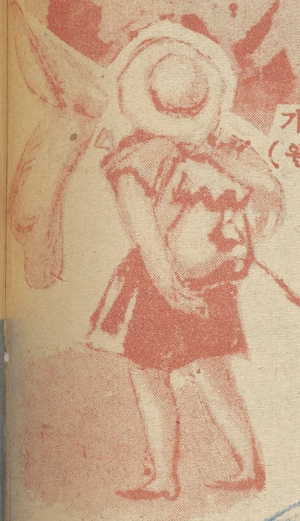
가무극 《비둘기와 올빼미》
(원산 사부)

《꼴, 꼴》 하는 고함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이번에는 황북 선수들이 몰고 들어간 뽈이 함북 키퍼의 손에 잡혀 있었다. 뽈은 또다시 공중을 날은다.

이 얼마나 행복한가, 마음껏 뽈을 차고 마음껏 뛰며 즐길 수 있음이—. 그들 속에서 10년 자란 체육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소년단원들은 신체 단련에서도 항상 준비하고 있다.

×

될터이다 될터이다
나는 나는 공화국의
음악가가 될터이다
....

국립 예술 극장 무대에서는 강원도 원산 꼬마 예술가들의 스켓취 《우리는 맹세한다》가 상연되고 있다.

그들은 한결 같이 장래의 모범 로동자 모범 농민, 비행사, 예술가, 기술자, 영웅이 될 것을 맹세하고 있다.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될 수 있는 행복한 앞날을 노래하고 있다. 이 희망은 모든 조선 소년단원의 희망인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장래 우리 나라의 주인들임을 똑똑히 알고 있으며 또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의거 입북해 온 전 《국방군》 장병들과 월북해온 학생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여 뜨거운 박수 갈채를 보낸다. 어린이들 속에서도 우리의 예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예술을 창조해 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고상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교양되고 있다.

25일부터 개막된 예술 축전은 매일 초만원을 이루면서 27일까지 계속되였다. 연 1,240여명의 어린 예술가들은 100여 종목의 다양한 프로를 가지고 출연하였다.

×

27일부터 28일 사이에 동 평양 비행장에서는 모형 항공기 경기 대회가 진행되였다. 이날 각도에서 온 대 열성자들과 항공 크루쇼크원들은 비행기를 타고 공중 려행을 하였다.

우리는 가슴 뛰는
미래의 매들
무지개 꿈을 모형기에 날리는
항공 크루쇼크원들

오늘 아침 지나온 쓰딸린 거리
노래하며 건너 온 대동강 줄기
모두 모두 굽어보며
자랑스레 굽어 보며

맑게 개인 하늘을 우리는 난다.
꿈이 아닌 지금
비행기로 비행기로
공중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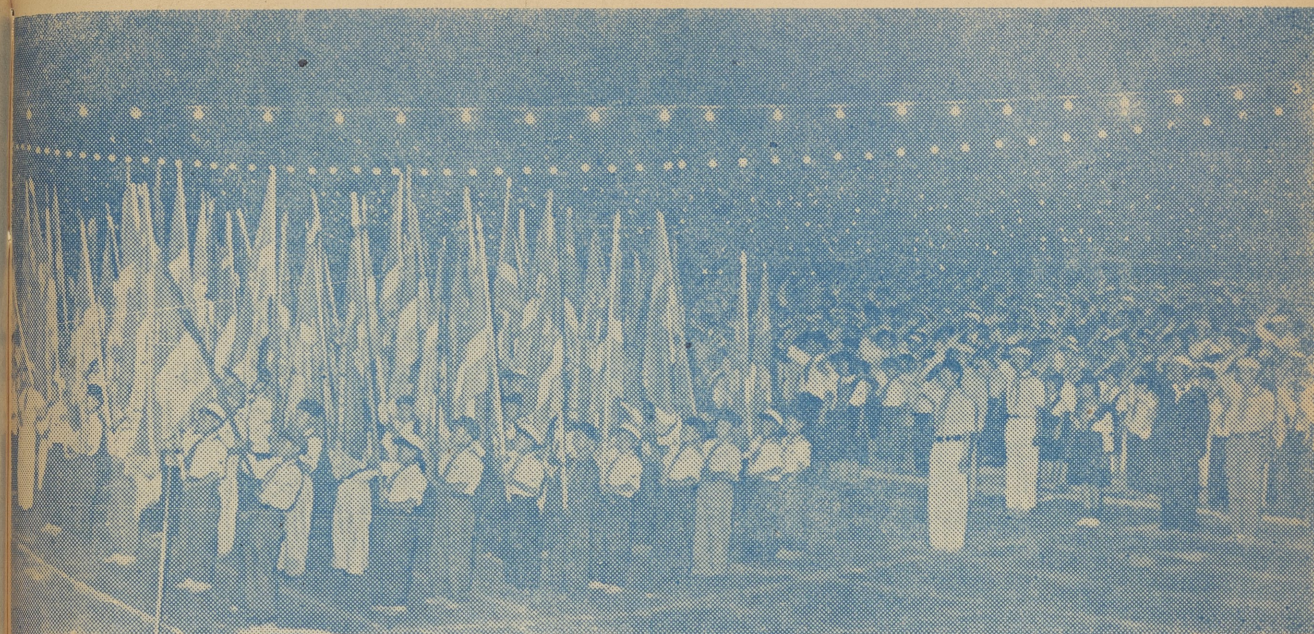
우릴 태운 비행사 저 형님도
어제는 우리같은 붉은 넥타이
모형 항공기 날리며 하늘 그리든
어제는 우리같은 크루쇼크원

푸른 하늘 날아 가며
나는나는 다짐한다 가슴 뜨겁게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서
래일의 훌륭한 비행사가 되리라

비행장 저쪽에
모형 항공기 추켜든 동무들이
손 저어 우리를 부르누나
아 우리는 공중을 나르고 있다.

×

초저녁부터 모여 들기 시작한 축전 참가자들과 학부형들로 모란봉 경기장은 대만원이였다. 바로 오늘 저녁 여기서 축전 폐막식 야회가 벌어진다. (28일)

날이 어두워 오자 아이들 속에 둘려 있

는 수만개의 초롱에 불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경기장 중앙으로부터 사방으로 늘인 수백개의 전등은 야회장을 대낮처럼 밝혀 주고 있다. 또 여기 저기 싸치라이트까지 비쳐준다.

어디를 보나 불, 불, 불 천지다. 이런 것을 가리켜 불야성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내 옆에 앉은 소년단원들은 지난 축전 기간의 행사들을 이야기한다. 얼마나 즐거웠든 날들이랴, 정말 잊을 수 없는 날들이였다.

꽃봉오리 행진, 체육축전, 예술축전…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을 비롯하여 유서깊은 만경대와 평양 방직 공장 등을 견학하였다. 영웅들과 상봉하여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그들은 조국의 산 력사를 배웠다.

저녁이면 야외 무대들에서 벌어지는 춤과 노래를 마음껏 즐기였으며 《승냥이》를 비롯한 연극과 영화들을 보았다.

한 설야 선생을 비롯하여 많은 작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독자 모임을 가졌으며 그날받은 싸인은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 평양시 소년단원들과의 상봉 모임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정성담긴 선물을 주고 받았다.

어린 과학자들은 또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웠는지 모른다.

어찌 이루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어찌 단숨에 다 이야기할 수 있으랴!

술렁대든 식장이 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지고 주석단에 당과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등단하였다. 우뢰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다.

전원 집합을 알리는 라팔 소리가 울리였다. 군악대의 주악에 맞춰 《김 일성 장군의 노래》는 5만여명의 소년단원들과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온 시민들의 합창으로 모란봉을 뒤흔들면서 밤 하늘에 퍼져 간다.

노래를 부르며 소년단원들은 한 마음으로 다짐한다——어떠한 난관과 애로 앞에서도 항상 용감하며 충실한 애국 투사가 되기 위하여 영웅 조선의 소년단원답게 꾸준히 배우며 준비하리라—

소년단 기'발을 높이 든 대렬이 노래를 부르며 주석단 앞을 지나 경기장을 행진해 나간다. 발구름도 우렁찬 대렬을 향해 그칠 줄 모르는 박수가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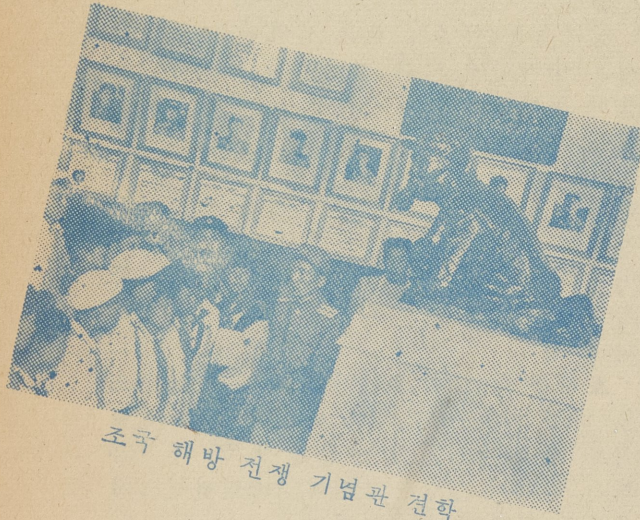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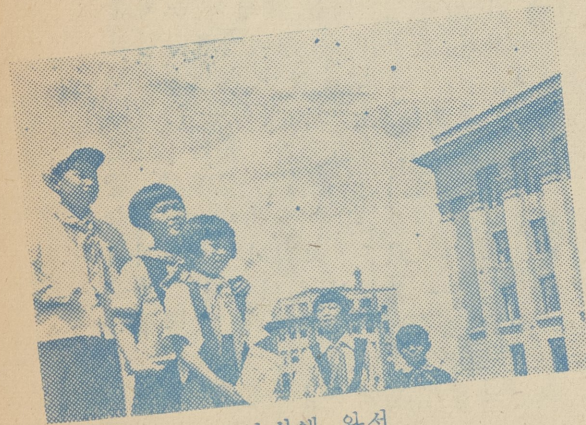
이윽고 꽃봉오리 행진곡이 흘러 나왔다. 대렬은 갑자기 아름다운 원무의 물결로 변했다. 바로 이때 꽃불이 밤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리며 줄기차게 올라갔다. 와— 환성이 일어난다. 춤은 민족무용 《한강수》로 넘어갔다. 꽃불은 오르고 또 오른다.

넓은 경기장이 넘치도록 원무는 돌고 또 돈다. 드디어 나는 참지 못하고 파도속에 뛰여 들어가 소년단원들과 춤을 추

며 돌아갔다. 나도 어린 아이가 된 행복속에 잠기여—

그러나 잊을 수 없다. 이 밤에도 남반부 아이들은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고 있으리라, 한나라 한 민족의 소년 소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밤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때 나는 코'등이 저리여 왔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조국이 통일되는 날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

우리들은 행복하다. 이 행복을 남반부 동무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그 누구도 우리들의 즐거운 춤과 노래를 빼앗지는 못하리라. 새 조선의 꽃봉리이며 보배이며 희망인 소년들의 행복한 생활을 그 누구도 짓밟지는 못하리라.

천진란만한 소년단원의 미래는 광활하다.

경기장 야외 무대에서는 경축 공연이 시작되였다. 슬기로운 어린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는듯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빛난다.

이 밤이 가고 날이 밝으면 아이들은 제각기 작별하여 돌아 가리라. 돌아간 그들은 동무들과 모여 앉아 즐거웠던 축전의 날들을 이야기하리라.

잊을수 없는 자랑들을 학교와 마을에 선물 하리라. 10년 자란 소년단원들이 이룩한 가지가지의 자랑은 전설처럼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리라.

평화를 사랑하는 붉은 넥타이들이여! 영광이 있으라!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 견학

평양시에 와서

옛'이야기

수밀도

원 도 홍

어떤 산'골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수밀도 라는 좋은 복숭아 나무를 가꾸어서 살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해 늦은봄, 이 산골에 왕이 사냥을 나왔습니다. 첫날 사냥을 하고 난 왕은 씨원한 과일이 먹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과일이 없느냐?》 왕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네 수밀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하는 무릎을 꿇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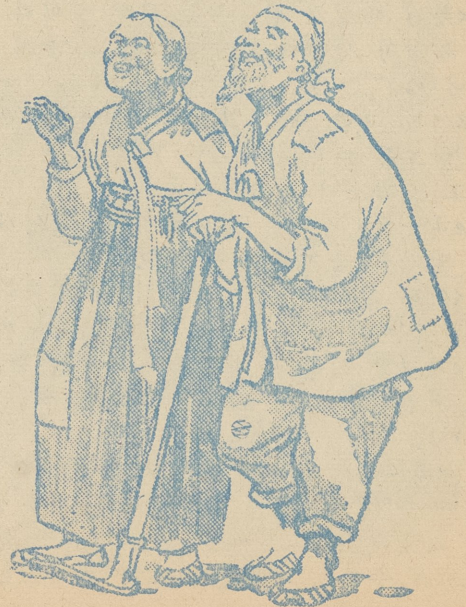
《수밀도? 참 좋은 과일이지, 곧 따 오너라》.

《네—잇》 부하는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왕님께서 수밀도를 가져 오라는 명령이다. 곧 수밀도를 따다 내 앞에 바쳐라》.

부하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봄에 무슨 수밀도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직 수밀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죽구 싶지 않으면 당장 갖다 바쳐라》

《아니 없는 수밀도를 어떻게 바치란 말입니까?》.

《이놈 잔말 말구 썩썩 가져오지 못하겠니》.부하는 시펴런 칼을 쭉 뽑아 들고 할아버지네 집을 샅샅이 뒤져 보았으나 수밀도는 한알도 없었습니다.

부하는 큰 일이 났습니다. 만일 이대로 간다면 무서운 매를 맞고 당장 모가지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는 거짓말을 꾸며 가지고 왕 앞에 갔습니다.

《왕님 수밀도 밭임자가 나쁜 놈이라 끝내 왕님의 말씀대로 수밀도를 내 놓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놈이 있느냐, 그놈을 잡아다 죽도록 때려라》. 왕은 째진 눈을 부릅뜨고 소리소리 쳤습니다.

《네—잇》 부하는 할아버지를 묶어다가 왕 앞에서 볼기를 쳤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님》 할아버지는 왕에게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거짓말 말라 이 죽일놈, 저놈을 더 치고 저놈의 수밀도 나무를 모조리 찍어 버려라》.

《네—잇》 부하는 왕이 자기를 믿어 주는 것을 기뻐하면서 할아버지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치고 도끼를 들고 나가서 할아버지네 수밀도 나무를 모조리 찍어버렸습니다.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우 목숨이 붙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그루만 남은 수밀도 나무를 붙들고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꼴이냐, 수밀도 나무야 이전 네 과일을 보긴 다 틀렸구나 내가 이렇게 늙지만 않았어도……》 하고 섧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밑그루만 남았던 수밀도 나무들에서 새 싹이 봉긋 돋아 나오더니 눈에 띄게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눈깜빡할 사이에 전과 같이 큰 나무들이 되고 먹음직한 수밀도들이 주렁주렁 달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이걸 나와 보우 이게 꿈이나 아니요?》 할머니도 놀랐습니다.

《이게 어쩌된 일이요? 어서 그 수밀도를 따 먹어 보우》.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밀도 한알을 뚝 따서 먹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밀도를 먹자마자 할아버지의 허연 쉬염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주굴주굴하던 주름'살이 쫙 펴지더니 젊은이가 되였습니다.

《아 이게 웬 일이요?》 할머니는 젊어진 할아버지를 바라 보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참 이게 웬일이요? 어서 당신두 한알 따 먹어 보구려》 그래서 할머니도 수밀도를 따 먹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꼬부라졌던 할머니가 허리를 펴고 이쁜 새 색씨가 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할아버지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나두 모르겠소. 자 당신들도 이 수밀도를 한알씩 먹어 보구려》 수밀도를 먹자마자 그들도 모두 젊은이가 되였습니다.

《참 이게 이상한 일이로군》. 다시 젊어진 이웃사람들은 너무도 기뻐서 싱글벙글하였습니다.

이 소문이 곧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그놈의 수밀도를 한알도 남기지 말고 모주리 따 오너라》 하고 부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네—잇》 부하는 할아버지네 수밀도 밭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우거진 수밀도 나무'잎 사이로 주먹만큼씩 큰 수밀도들이 주렁 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에라 나부터 먼저 먹구 보자》. 부하는 큼직한 수밀도 한알을 뚝 따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새파란 젊은이로 변하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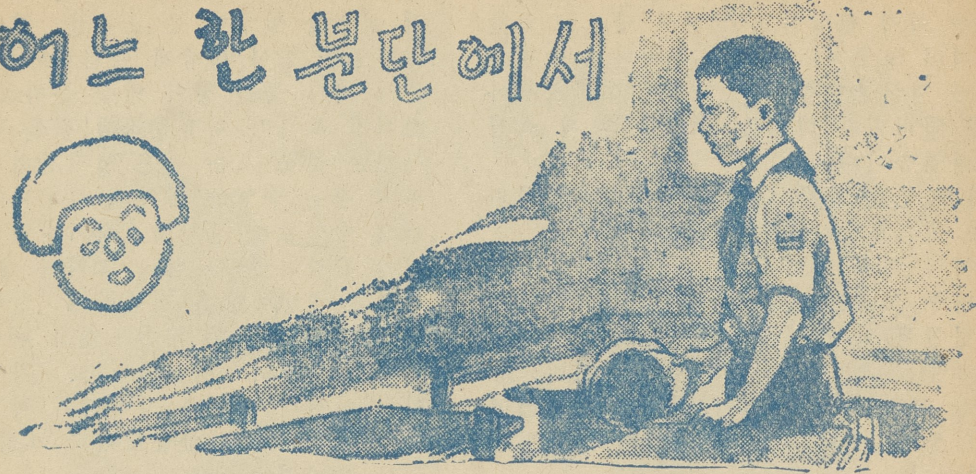
부하는 너무도 기뻐서 싱글벙글하며 수밀도를 모조리 따가지고 왕한테 달려 갔습니다. 왕은 젊어진 부하를 보자 눈에서 번개를 일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놈을 잡아서 죽게 때려라》. 왕은 자기 혼자 먹지 못한 것이 매우 분하였습니다. 젊어진 부하가 병정들에게 매를 맞아 죽어가는 것을 보는 왕은 어지간히 성이 풀려서 검은 수염을 헤치고 바구니에 그득 담긴 수밀도를 한입에 대여섯알씩 집어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염이 사라지고 맹숭맹숭한 젊은이로 변하였습니다. 그래도 왕은 게걸스럽게 나머지 수밀도를 모조리 먹었습니다. 왕은 점점 더 젊어지다가 차차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아주 어린애가 되였습니다. 그리고도 자꾸만 줄어갔습니다.

《야야 이거 큰일 났다. 날 좀 잡아 늘궈다우.》 갓난애만큼 쫄아든 왕은 죽겠다고 소리쳤으나 그냥 쫄아 들기만 하였습니다. 왕은 주먹만큼 쫄아 들어서 말도 못하고 빽빽거리다가 나중에는 먼지만 해져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부하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부들부들 떨다가 뿔뿔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후부터 젊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이웃 사람들은 모두 재미있게 잘 살았답니다.

어느 한 분단에서

—함북 종성 제 3중학교(인민반)대에서

교실 당번인 성국이는 교실문을 열자 깜짝 놀랬다.

새'하얗게 회 칠을 한 뒤'벽에 더러운 흙물로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이런 못된 장난을 했을가?》

성국이는 너무 어이가 없어 잠시 멍하니 살피다가 걸레로 닦아 보려고 마음 먹었다. 성국이는 청소함에서 바케트를 꺼내 들고 밖으로 뛰여 나갔다.

그때 마침 분단 위원장 충운이와 마주 쳤다. 성국이에게서 교실에 락서가 그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충운이는 처음에 몹시 분했었다.

두 동무가 물을 길어 가지고 교실에 들어 왔을 때는 재완이랑 춘식이들이 뒤'벽 앞에서 킬킬거리고 있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 분단은 지난 해에 새로 선거된 분단 열성자들과 많은 동무들이 힘을 모아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온 아름다운 자랑으로 차 있었다.

그러나 4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분단에는 하나 둘 말썽'거리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쉬는 시간이 되면 몇몇 아이들은 교실에 남은 채로 장난들을 하였으며 종이 울려도 자리에 앉을 념을 하지 않았다. 열성자들이 《정돈!》하고 소리를 쳐도 그들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수업을 맞는 교실은 깨끗할리 없었다. 그럴 때마다 분단 위원장인 충운이의 마음은 안타까워만 졌다. 그런데 또 오늘…

《누가 이런 장난을 했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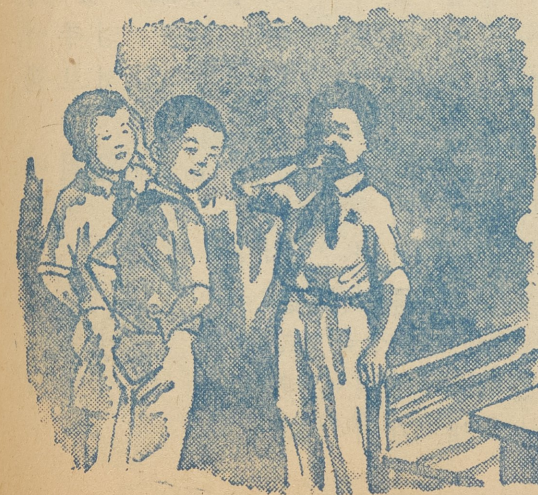
충운 동무는 벽앞에 모여선 분단 동무들을 보고 묻는 것이였다.

《그야 뻔한 일이지…》하고 언제나 입이 빠른 재완이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려는데 교실문이 열렸다. 교실에는 새학기에 전학해 온 몸집이 큰 희만이가 모자를 쓴채로 나타났다. 빙그레 웃음을 띄우면서 동무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 온 희만이는

《무슨 일이 생겼니? 난 또 무슨 큰 일이라구》하고 능청스레 소리치는 것이였다.

사실은 재완의 말대로 《뻔한 일》이였다. 틀림 없이 희만이네들이 저지른 장난이였다. 그러나 희만이가 나타난 교실에서는 입빠른 재완이도, 바른 말 잘 하는 춘식이도 말할 수가 없었다.

동무들 앞에 버티고 서 있는 희만이가 곧 화목한 분단을 걱정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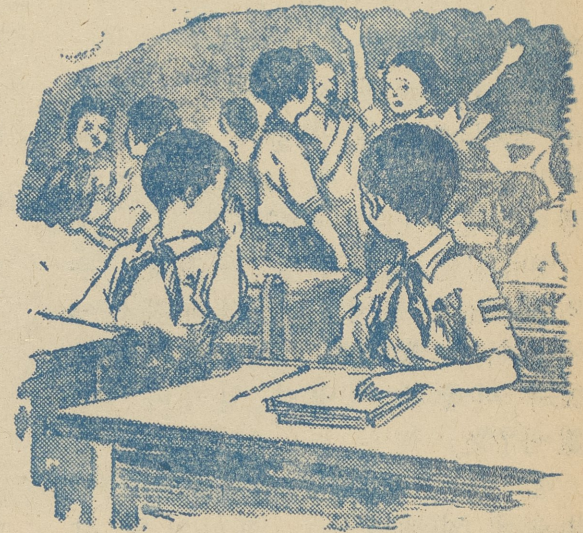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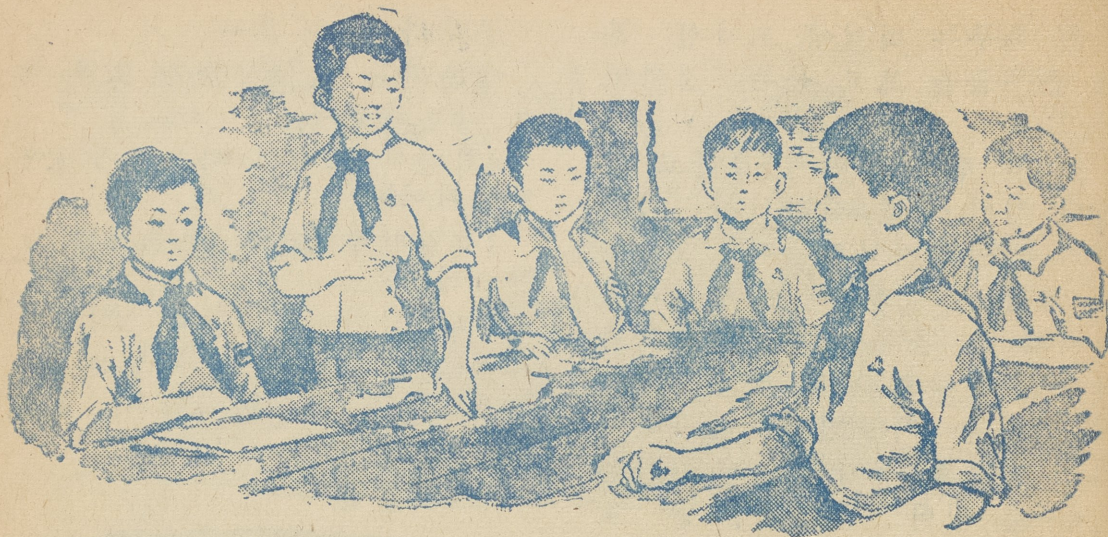
누구나 그런 줄은 알지만 그러나 이 《뻔한 일》을 어떻게 털어 놓고 고치겠는가?

공부가 끝난 후—

충운이는 열성자들을 모아 놓고 의논하였다.

《희만이 혼자서 하는 장난이 아닐거야》.

《경일이랑 늘 감싸 주니깐 그러는게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희만이 혼자만이 아니라 그와 노는 아이들까지도 잘 타 일러서 고쳐 주어야 해…》.

그 이튿날—

분단 모임이 열렸다. 희만이는 까딱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의 힘을 믿고 언제나 까불던 경일이는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사실 경일이도 희만이를 그리 좋은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편을 들어 주니까 따라 다녔다. 그러나 어제 분단 열성자들에게서 오늘 분단 모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경일이는 《희만이의 잘못을 이야기할가? 이야기하면 희만이가 뭐라 할가?》하고 여

러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순간 경일이의 머리에는 열성자들이 친절히 타 일러 주던 이야기가 떠 오르며 이런 생각들을 지워 버렸다.

《너희들 몇동무들 때문에 우리 분단의 영예가 더럽혀져서야 되겠니? 생각해 봐! 그전처럼 모두 의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니?》.

경일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희만이를 감싸 줄줄만 알았던 경일이가 희만이의 지금까지의 잘못을 남김없이 죄다 이야기하였다.

경일이의 이야기는 희만이를 퍽으나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뺏뺏이 앉아 경일이를 뚫어지게 쏘아 보았다. 많은 동무들이 계속 그의 잘못을 친절하게 타일러 주었으나 희만이는 약간 얼굴빛을 붉힐 뿐 아직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다.

그후에도 몇번 분단 열성자들과 많은 동무들이 그를 친절하게 타일러 주었으나 희만이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벽보판 앞에서는 많은 동무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주먹이 제일인가?》 영식이가 제목을 읽었다.

《에크 저 부르쥔 주먹을 봐!》

《하하……》

《뭐? 다음 호에 계속, 거 볼만 하겠는데》.

아이들은 벽보를 읽으면서 저마다 수군거렸다.

한참 있다가 희만이도 왔다.

희만이는 벽보 앞에 멈추어 서자 씩씩거리며 한동안 벽보를 쏘아 보았다.

그러나 벽보는 편집 위원회에서 만들며 선생님이 보신 다음 내다 붙인다는 것을 잘 아는 희만이는 트집잡을 길이 없었다. 더우기 《다음 호에 계속》이라는 말은 희만이에게 있어서 어쩐지 마음에 꺼리키였다.

그날 쉬는 시간에는 교실에 남아 장난치는 아이들을 볼 수 없었다. 언제나 《왕》노릇하던 희만이가 하루 종일 잠잠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희만이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자기는 분단 동무들에게서 동떨어져 홀로 남은 것만 같았다. 자기 말을 잘 들었고 편들어 주던 동무들과 다른 동무들이 분단 모임에서나 분단 벽보를 통해서 자기를 충고해 준 것이 밉기도 했고 한편 자기 잘못을 숨김없이 털어 놓아 준 것이 시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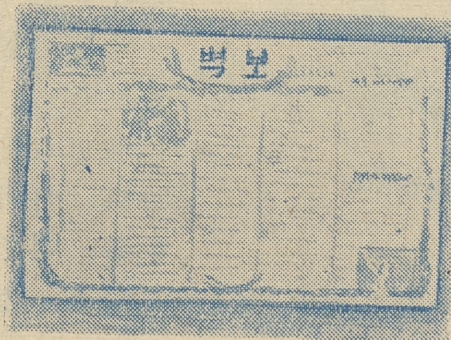
그러나 제가 제일이라고 우쭐대다가 이제와서 동무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쩐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는 며칠을 두고 속을 썩이던 끝에 선생님을 찾아 가기로 결심하였다. 선생님을 찾아간 그는 의좋게 지내는 분단 동무들을 본받아 훌륭한 소년단원이 되겠다는 것을 선생님에게 약속하였다. 선생님은 분단 열성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분단 동무들은 모두 웃는 얼굴로 희만이를 반겨 주었다. 분단 동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때 희만이는 저으기 안심되였다.

이리하여 분단은 다시 재미나는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분단의 재미나는 일들에는 희만이도 경일이도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분단에서 맡기는 일을 잘 해 나갔다.

얼마후 새 벽보가 나 붙었다.

거기에는 희만이에 대한 글도 씌여 있었다. 그러나 그 글은 희만이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지 않았다. 희만이도 그를 도와준 분단 동무들도 희만이를 칭찬한 그 벽보를 기쁨으로 읽었다.

(장 춘 산)

〈작 문〉

오늘 대 모임에서 나는 조선 소년단 창립 열돐 기념 개성시 소년단원 축전에 참가하게 되였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다시금 공화국의 품에서 자라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우리 고향이 아직까지 리승만 역도놈들이 날뛰고 미국놈들이 마음대로 지랄치는 세상에서 해방되지 못했다면 나와 그리고 많은 동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였을가?… 이런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난다.

그때 나는 겨우 일학년에서 공부했다.

헐벗고 굶주리면서 학교에 다니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한번은 학교에 《국방군》 두놈이 와서 어린 우리들에게서 피를 뽑겠다고 했다.

나는 겁에 질려 울면서 집으로 도망쳐 온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쫓겨 났다.

지금도 남반부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쫓겨나며 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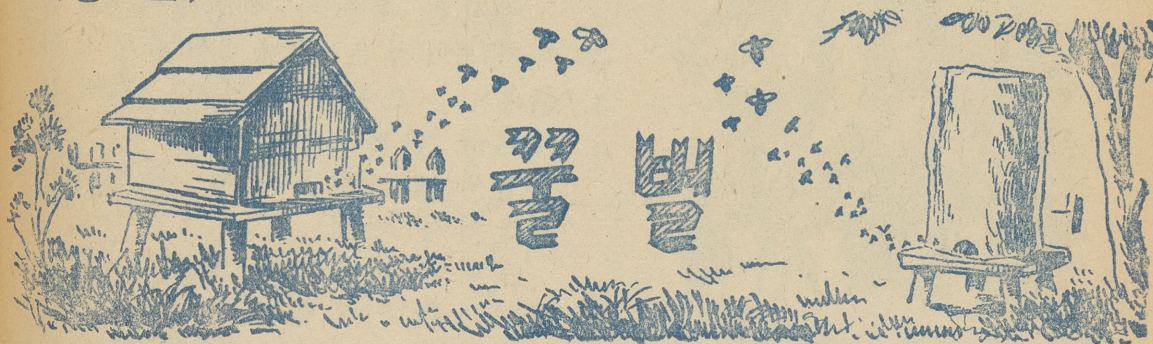
한나라 아이들이면서 그들은 왜 우리와 함께 공부하며 놀수 없을가? 그것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놈들 때문이란 것을 나는 잘 안다.

나는 이번에 인민 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며 여름 방학에는 중앙

속후 야영소에 가서 즐거운 야영 생활을 하게 된다.

즐거운 우리들의 명절날 모임인 소년단원 축전에 참가하는 기쁨! 나는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서 배우며 자라는 이 행복을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배 고파 울고 있을 남반부의 동무들과 하루 속히 나누고 싶다. (1956. 6. 10)

개성지구 판문군 홍왕 제1 인민 학교
제 5학년 한 춘 자

〈동 요〉

자강도 동신군 백산 인민 학교
3학년 송 금 녀

잉잉 모였네 꿀벌들이 모였네.
옥이네 꿀벌도 수남이네 꿀벌도
협동 조합 벌통으로 모두모두 모였네.

잉잉 일하네 노래하며 일하네
힘모아 꿀캐기 재미재미 난다고
이산 저산 꽃동산 찾아찾아 간다네.

잉잉 캐오네 사탕 꿀을 캐오네.
캐낼수록 새살림 늘어가서 좋다고
아빠엄마 꿀벌들 신이 나서 일하네.

〈작 문〉

즐거운 여름 방학

푸른 산 기슭을 스쳐 지나는 대동강변 솔밭에서의 우리들의 야영은 참 즐겁다.

아침 해'님이 동산에서 머리를 들자 낮게 떠돌던 안개도 사라지고 여기저기에서는 산새들의 노래 소리가 유쾌히 들려온다.

《하나 둘》 맑은 아침 공기를 깨트리는 아침 체조가 끝나면 우리들은 저마다 책읽기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

언덕밑에 있는 마을 협동 조합벌에서는 염소와 양떼들이 풀을 찾아 다니고 있다.

우리들은 조합 아저씨들을 찾아가서 양치는 이야기도 들었다.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우리 나라 목축업의 앞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언덕에 올라 앉아 우리 고향을 그림 그리면서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자랑하고 싶었다.

쟁글쟁글 해'빛은 뜨겁다. 그러나 우리들은 포충망을 메고 숲속으로 찾아 떠난다.

채집한 곤충과 식물들을 정리하며 《이것은 야영 생활에서의 훌륭한 선물이다》하고 우리는 기뻐들 한다.

벌써 긴 하루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져 간다.

우리들은 저마다 일기를 쓰며 어둡기를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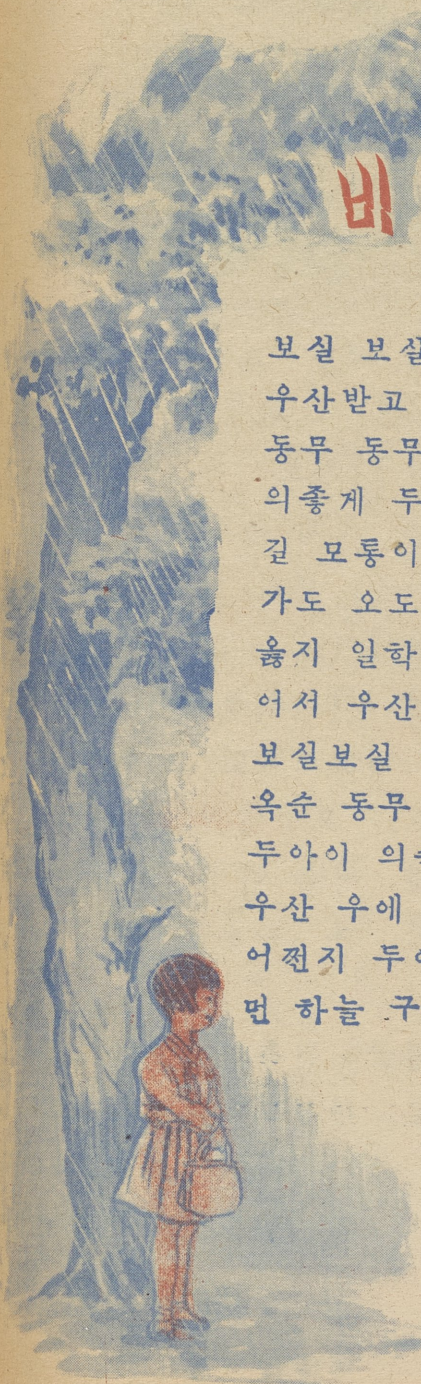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주고 받는 우등'불 모임도 재미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이 준비해 준 보름 동안의 우리들의 야영은 날마다 즐겁다.

황북 신평군 대지 인민 학교 대
한 태 선

비오는 날

김 순 석

보실 보실 비나리는 교문을 나와
우산받고 두아이 돌아옵니다.
동무 동무 우산을 같이 받고서
의좋게 두 아이는 돌아 오는데
길 모퉁이 나무아래 비를 피하여
가도 오도 못하는게 그게 누굴가
옳지 일학년생 옥순 동무지
어서 우산 아래 들어서 가자.
보실보실 비나리는 거리를 돌아
옥순 동무 집까지 대려다 주고
두아이 의좋게 돌아 옵니다.
우산 우에 비'방울 자꾸 내려도
어쩐지 두아이는 즐겁습니다.
먼 하늘 구름짬에 해'님도 웃어요.

논'두렁에서

4월도 다 지나간 어느날 저녁녘이였습니다.

나는 넓은 논'배미마다 넘실거리는 물과 푸르러가는 벼'모판을 바라보며 마음이 흐뭇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행길 옆 논'두렁에서 소년들이 얼굴과 손에 왼통 감탕칠을 해 가지고 뙈를 떠나르기도 하고 도랑을 쳐 없기도 하며 법석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논'두렁에서 웬작난들이냐?》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얼굴을 들며 《아니예요, 아저씨. 우리들이 학교에서 돌아 오는데 이 도랑이 터졌길래 지금 막느라고 그래요》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대답하는 것이였습니다. 《응 그래! 너희들 참 용쿠나! 그런데 여긴 누구네 논이니?》하고 다시 물었더니 《협동 조합 논이예요. 우리거죠 머!》하며 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동무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였겠어요. 도랑에서 몰려든 물때문에 지금 한창 자라는 벼'모들이 다 상했을지도 몰랐지요.

이렇듯 기특한 일을 한 동무들은 강원도 문천군 제9중학교 제1 학년 리 경화 동무와 그의 동무들이였습니다.

김 수 길

춘식이의 일과표

방학간 일과표를 새로 세운 춘식이는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최우등생이 될거야》하고 중얼거리면서 빙그레 웃었답니다.

해'살이 기웃이 방안을 비칠 때 춘식이는 벌떡 일어나 《아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배운 것을 하나 하나 다시 읽어 나가니깐 쉽기도 하였지만 재미도 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 나가신 다음 춘식이는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낮공부》를 시작하였답니다. 글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보니깐 척척 풀리는 것이 무척 재미가 났답니다.

이렇게 공부한 춘식이는 우쭐해졌답니다.

그 다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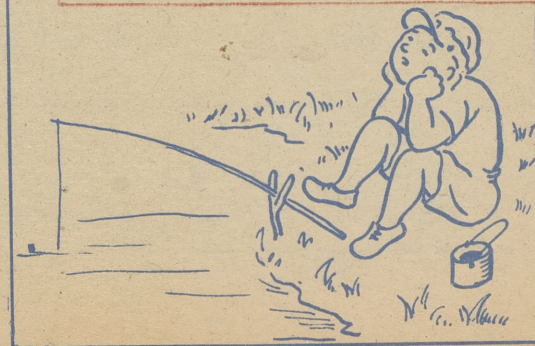
춘식이는 일어나려다가 문득 《어제 산수를 20문제나 풀었는데 오늘 아침 공부쯤 안해도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늦어서야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데 영일이가 밖에서 《춘식아 고기잡이 가자!》고 찾았습니다.

《음 국어도 어제 많이 읽었으니까…》.

이렇게 마음 먹은 춘식이는 밥술도 놓기 바쁘게 강'가로 내달았습니다.

그물을 끌고 내'가에서 몇번 오르내리는새 벌써 해'넘은 서산에 숨어 버렸답니다.

그 다음 날— 춘식인 이불 속에 누운채 《에라! 이번 주일은 그냥 놀다가 다음 월요일부터는 꼭 지켜 보자!》고 혼자서 약속

했답니다.

《다음 월요일》로 미루고 또 미루어 방학 동안의 마지막 월요일도 지나고 새학년이 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이 《너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냐?》고 물으면 춘식이는 글쎄 무어라고 대답하겠는지요. 지나간 시간을 도로 잡아 올 수도 없구………

여러가지 말

제 4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1 임의의 거리를 40리로 하면 기차를 타고 간 소년이 20배 즉 20리를 갔을때는 걸어가는 소년은 1리간다.

다음에 걸어가는 소년이 우차를 탄 소년보다 두배 빠르므로 우차를 탄 소년이 21리에 갔을때는 걸어간 소년은 3리에 도착되며 22리때는 5리, 23리때는 7리… 이렇게 되여 39리 지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우차를 타고 간 소년이 39.5리까지 갔을 때는 걸어가는 소년은 40리 종점에 도착한다. 때문에 걸어간 소년은 우차를 탄 소년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

답 2 학교에서 목장까지의 거리가 목장에서 마을 농업 협동 조합까지의 거리보다 짧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 거리에서 짧은 거리를 감해서 나온 것을 다시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1230m - 738m = 492m$

$492m \div 2 = 246m$

(함북 김책군 제7 중학교(인민반) 허 구 룡 동무의 해답입니다)

당 선 자

량강도 갑산군 갑산 인민학교	김경호	강원도 원산시 제10인민학교	박영식
량강도 보천군 제3중학교(인민반)	오세묵	황북도 신평군 평화인민학교	정창우
자강도 룡림군 천산 인민학교	리운선	황북도 린산군 주암인민학교	최정자
함북도 김책군 제7중학교(인민반)	허구룡	황남도 송화군 룡호인민학교	리정호
함북도 화대군 주의 인민학교	김경숙	황남도 장연군 명천인민학교	강순옥
함남도 함흥 제3인민학교	강가일	평남도 은산군 천성인민학교	최대술
함남도 홍원 제1중학교(인민반)	고인현	평남도 성천군 제2중학교	오병순
강원도 창도군 당산인민학교	김수범		

편집 위원 김 주현(주필) 김 창호 원 홍구 리 순길 강 효순 리 배형 림 홍은

1956년 7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잡지
1956년 7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6년 제7호 총(82호)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40158 값 25 원 52,000부 발행

선죽교에서 (스켓취) 림영활 그림

《수문을 열어라!》 미술대학 리석산